원전 오염수 방류에 '방사능 소금' 공포…천일염 사재기 조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지난해 잦은 태풍·장마에 생산량 감소
산지서 대량 구매 급증…두 달 새 50% 가격 상승 매주 최고가 갱신
일부 생산자 출하 미루고·유통업자들 사재기 가세에 품귀현상 심화

"평생 먹을 소금 한 번에 사놓으려고 합니다."

주부 나모(여·63)씨는 돌아오는 주말 고향 친구들 5명과 소금을 사기 위해 산지에 간다고 했다. 친구들과 각자 20㎏짜리 천일염 100포대씩 총 600포대를 한꺼번에 구매하기로 했다. 대량 구매를 위해 화물차까지 섭외했다고 한다.

나씨는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 소금을 먹게 될까 께름직하다"며 "앞으로 살아갈 동안 먹을 소금을 전부 사놓고 시골 고향집에 보관해두고 먹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소금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방사능 소금'을 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과 공포가 확산하면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산지에서는 천일염 가격이 매주 최고가를 갱신하는 것은 물론, 다량의 천일염을 구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업계에 따르면 천일염 20㎏짜리 한 포대 산지 가격은 약 2만원 선이다.

광주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모(50)씨는 "올해 4월 신안 신의도 한 염전에서 20㎏ 한 포대에 1만3000원 정도에 사왔던 천일염이 5월 중순 1만6000원 수준으로 뛰었다"며 "이달 초에는 1만9000원까지 오르더니 지금은 2만1000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불과 두 달새 천일염 산지 가격이 50% 상당 올랐다는 뜻으로, 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하면서 매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추세라는 게 생산업계의 설명이다.

소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사재기가 원인으로 꼽힌다. 천일염은 오래 보관할수록 간수가 빠지는 등 소금의 품질이 좋아져 미리 사놓는 사례가 증가해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잦은 태풍과 긴 장마, 최근에 내린 많은 비 등으로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오는 7~8월 장기간 비가 온다는 예보까지 겹치면서 소금값이 치솟는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해제면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김모(73)씨는 "올해 전반적으로 생산이 줄었는데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소금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염전에서는 소금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소금을 사러 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값이 오르면서 일부 생산자들은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출하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간 유통업자들 역시 소금값이 연일 오르자, 미리 사들인 소금을 쌓아둬 시장 공급량이 감소해 품귀 현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수요는 늘고 생산을 적어지면서 값이 오르자 천일염을 대량 구입해 소비하는 김치공장과 장류제조 업체 등 관련 업계의 시름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또 소금은 김치와 장류, 생선을 비롯한 모든 음식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금값 상승이 식품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의 한 천일염 생산업자는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산된 천일염을 쌓아두고 있는 사례가 꽤 많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금을 찾는 사람은 늘어 한동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 목포농협 달성탑 수상

목포농협은 지난 1일 농협 중앙본부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목포농협은 2021년 12월 9000억 원을 달성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을 돌파했으며, 전남 144개 농·축협 중에서는 순천농협에 이어 두 번째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상호금융 예수금 1조원 달성은 고객과 조합원의 지지와 성원 아래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서 얻은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양·포항시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상생협력 기원 지역특산물 교환

농협 광양시지부는 최근 포항시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상호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협력을 기원하고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도 주고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상호기부는 광양시지부와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 ▲동광양농협(조합장 이돈성) ▲광양동부농협(조합장 문정태) ▲진상농협(조합장 임대영) ▲다압농협(조합장 김종연) ▲광양원예농협(조합장 김영배) 임직원 100여명과 포항시지부를 비롯한 포항시 관내 10개 농협 임직원이 참여했다.

장영조 광양시지부장은 "상호기부를 통해 철강 대표도시인 광양과 포항의 범농협 임직원들이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됐다"며 "광양시농협은 앞으로도 고향에 대한 관심과 기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올 여름도 해파리 주의보…"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해수부,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
해역별 민관 모니터링 강화 등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와 해수욕장 쏘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해수부는 우선 해역별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단계에의 제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파리 신고웹을 통해 해파리 출현 정보와 방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 신고자 4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면 중앙대책본부, 지방대책본부, 해파리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수산양식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해선 복구비와 생계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3~5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전북, 전남 일부 해역에서 어린 개체가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독성이 있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작년에 비해 출현량이 적었으나, 올 여름 수온이 평년 대비 섭씨 0.5~1도 높아 성장이 빠를 전망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중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6월 말부터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도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확대

농업인단체 "인력난 해소 도움"

농업인단체는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농업인 단체장의 건의를 수용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극심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회에는 이에 대해 "최근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놓고 농민 간 다툼이 일상이 될 정도로 영농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고,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1.4%↓

지난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이후에도 공급 여건이 개선돼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작년 동월과 비교해 1.4%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닭고기와 양파 등의 가격은 작년 동월과 비교해 10% 넘게 올랐다.

지난달 닭고기 가격은 병아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 14.8%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들이 병아리 수를 늘리도록 독려하고,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달 양파 가격은 1년 전보다 33.5% 비쌌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수입 양파 5천t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